

건축문화 RANG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7.11.09 6호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협회 발행인: 정명철, 박용욱, 전병갑 창간일: 2009년 11월 10일

사랑



건축문화사랑 창간 8주년 기념사 & 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 선거 후보자 '전라권 토론회' 광주서 개최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서구 차평동 DJ센터 2층(201호) 세미나실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경찰의날 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지난 10월 20일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서

광양지역건축사회,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성금 200만 원 기탁

지난 10월 18일 광양에서 가진 회원 친목 화합 한마당에서...

건축문화사랑 창간 8주년

Editorial

건축사 직업의 한계

'2017 전라남도 패시브하우스 컨퍼런스' 열린다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 순천만국가정원 내 국제습지센터 1층 입체영상관에서...

전라북도민과 함께하는 '제18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지난 10월 28일부터 6일간 전북도청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제'라는 주제로

전북 군산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소통의 장 마련

지난 10월 18일 중앙동 지역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제21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사람과 문화가 있는 도시디자인, '제1회 국제도시디자인포럼' 개최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대 건축학전공 학생들, 한·일 학생교류 및 기업체 탐방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건축물 답사와 일본 학생들과 교류 등 진행

사랑에서_ 서른여섯 번째

너에게 묻는다

세상사는 느낌 _ Towards my architecture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열람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Editorial

건축사 직업의 한계

최근 소위 환갑이란 나이에 접어들면서 건축사란 직업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보았다.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한 지 벌써 22년째 되면서 건축설계하고 인허가받아내고 공사 마무리하고, 사용승인 얻어 내기까지 힘들게 살아온 과정이 주마등같이 스쳐 간다.

건축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 설계와 시공감리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건축사를 부르는 명칭이 그다지 오래지 않아 대개, 설계사라고 많이 듣게 된다. 공사현장에 나가면 건축사님이라고 듣는 것보다 "설계사님"이라고 많이 듣는다.

설계사라 하면 보험 하는 설계사도 있고 자동차나 선박을 설계하는 설계사도 있다. 이렇게 건축사가 아닌 설계사라는 호칭을 자주 듣다 보니 보험회사에 가서 있다 보면 여기도 건축사가 있나 착각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러면 건축사와 건축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건축사는 국가의 자격 면허를 갖고 있어서 건축가가 될 수 있지만, 건축가는 건축사가 될 수 없다. 건축가는 내가 원한다면 될 수 있지만, 건축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건축사는 그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서명 날인한 건축도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어느 신문을 보니 "사"자 돌림으로 일컬어지는 전문직 종사자 7명 중 1명은, 월평균 매출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다. 충격적인 것은 8대 전문직 중 월 매출 200만 원 미만 신고한 업종은 건축사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건축사는 총 1만 1,800여 명 넘지만, 이 중 2,300여 명이 월 매출 2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변호사인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변호사 4,800여 명 중 18%가 넘는 890여 명이 월 200만 원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감정평가사(13.8%), 법무사(11.7%), 변리사(11.3%)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나타난 통계수치에 따라 건축사로서 전문직을 가진 우리에게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한때 건축사라 하면 판사, 변호사와 함께 3대 전문직으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나는 혈투를 벌여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같은 건축사의 소득신고 저조율은 장래 건축설계를 전문직으로 하려는 후배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건축설계 시장에서 자꾸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직원 채용하는 것까지도 힘들게 되어 갈수록 3D 업종으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건축과 졸업생을 건축설계직으로 모셔오는 것까지도 힘들며, 그나마 좀 키워놓고 나면 이직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지방에서 건축설계업은 나 홀로 설계업이나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다.

건축사의 직종이 이렇게 힘들게 되면서, 건축과를 지망하려는 학생들도 적어지게 되고,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건축설계직은 요연하고 희망의 싹이 솟아날지 걱정된다.

2017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건축사가 처리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점이다.

서류 간소화한다면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건축사의 업무영역은 가중되고, 건축사의 고유영역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가을이어서 그럴까?

추원호 논설위원

건축문화사랑 창간 8주년 기념사

정명철 대표발행인 기념사

호남지역 건축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발행하고 있는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어느새 창간 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발간해 온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문화는 그 시대의 문화 수준의 척도인 만큼 본 신문은 지역의 건축문화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건축인들과 일반 시민들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창간 8주년을 맞는 우리 '건축문화사랑'이 앞으로도 호남지역건축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데 매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다양한 문화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건축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편집위원들께서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축문화사랑'을 꾸준히 구독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본 신문이 나아가 할 목표와 방향을 잘 수립하여 호남권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건축사님들을 비롯한 대학교수님들,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광고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건축문화사랑 대표 발행인으로서 창간 8주년을 기념해 축하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더 발전하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협회
회장 정명철

주·전남·전북의 건축사가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건축사의 발전과 희망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도록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건축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 교류와 정보의 장으로 활용되길 기원하며,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간을 위해 헌신해주신 편집위원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병갑 공동발행인 기념사

친애하는 '건축문화사랑'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문화사랑' 발간 8주년을 맞아, 그동안 많은 관심 사랑으로 성원해 주신 건축사 회원님을 비롯하여 건축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견재하도록 열정을 다하여 헌신해온 전·현직 편집진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호남지역의 건축인들에게 대한 소식지로서 뿐 아니라, 정보교류 및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어 건축인들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을 다짐하며 출발한 이래, 본지가 더 발전하고 변화하고자 전력을 다하는 편집진의 노고를 지켜보면서, 공동 발행인으로서 폭넓은 지원을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초창기 발행 부수 2,000부를 현재까지 유지하며 내실 있는 내용 수록과 편집을 통해 명실공히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건축전문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1면에 사설을 게재하는 등 지면 구성의 대폭적인 변화를 통하여 새롭고 변화된 신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8주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욱 발전하는 '건축문화사랑'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모든 건축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 경기 전체가 불투명하고,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건축경기 또한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 건축인들은 건축문화사랑 지면을 통하여 따뜻한 소식을 서로 전하고, 위로하는 광장문화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건축인 모두가 함께 응원하는 사랑을 머금고 '건축문화사랑'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8주년 창간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사랑' 가족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협회
회장 전병갑

박용목 공동발행인 기념사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8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기념호를 우리 모든 건축사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광주·전남·전북 건축사의 발자취를 기록한 '건축문화사랑' 신문은 우리 건축사의 정보교류와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하였고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왔습니다.

창립 8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광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협회
회장 박용목

건축문화사랑 창간 8주년 기념 축사



(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회장 남해경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요즘 우리 주변은 예쁜 단풍과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곡식을 농부들이 수확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가을 풍경입니다. 그리고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다정한 친구인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창간 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과 더불어서 결실을 맺은 '건축문화사랑' 신문의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과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회장, 건축학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싶었던 것은 지방 건축인의 권익 옹호와 지방대학 건축학·건축공학과와의 발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것이 바로 '건축문화사랑' 신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을 가보면 그 지역의 건축인 신문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그 부족함을 채워 주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축계 소식을 알려주고, 건축인의 작품을 소개해 주고, 지역의 건축 뉴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보다도 더 고마운 것은 우리 지역 건축인의 자부심을 키워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갈까 의문도 들었지만 자랑스럽게 벌써 8주년을 맞았으니 대단한 일입니다.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우리 건축계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경기가 축소되어 설 계도 줄고, 건설현장도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 관련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우리 건축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언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앞으로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어려운 건축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면서 우리 지역 건축인들이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신문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축문화사랑' 신문의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신문 만드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문화사랑' 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축문화 사랑 창간 8주년 기념 축사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 주석중

우리는 지금 건축과 도시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축전문가그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공간의 확보'는 물론이고 '공간의 질'과 '환경'까지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에도 그동안 닦아 놓았던 사회간접자본의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이 녹아있는 '살기 좋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건축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제는 건축가가 '도시 행정'과 '문화 활동'의 중심에 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가 각자의 개인적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량을 한곳으로 모아 세력화할 필요가 있으며, 활발한 대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늘려가야 할 시점입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높여 나가는 활동도 늘려나가야 합니다. 건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서 한 시대 한 도시의 건축문화는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8년간 건축사협회는 '건축문화' 사랑의 발행을 통하여 이러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축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건축사 상호 간의 정보교환과 소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편집진에게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사)한국건축가협회 전라북도건축가회 회장 문창호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건축문화사랑'의 8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배달된 지면을 볼 때마다 새로운 건축 정보, 지역의 건축계 소식, 최신 작품 등 읽을거리·볼거리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간단한 부탁말씀으로 축사를 대신 할까 합니다. 그간도 잘 해왔지만 '건축문화사랑'이 보다 다양한 건축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건축단체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소비자는 우리 건축전문가들의 존재 의미입니다. 우리 건축전문가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종합된 최고의 결과물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이 하나의 문화로서, 건축이 진정 사람을 위한 건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사협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등 건축단체들이 각각의 전문영역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지난 UIA2017SEOUL 행사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사소한 문제 등으로 건축단체 간에 얼굴을 붉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건축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우리 세대에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건축문화사랑'이 지역의 건축사협회장뿐만 아니라 건축학회장, 건축가회장에게도 축사를 부탁한 것도 통합과 화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건축문화사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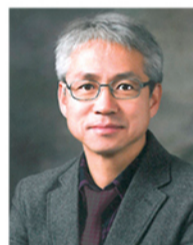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장 김홍식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009년에 창간된 '건축문화사랑'이 올해로 8돌을 맞이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발간 초기, 정보전달지의 성격에서 이제는 호남지역의 건축계 뉴스, 설계 경기 작품소개, 지역건축·도시문화제 소개, 각종 공모전 안내, 법령정보, 독자광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코너를 마련하고 광주·전남·전북지역 건축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이 신문이 발행될 때쯤이면 은근히 기다려지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알차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건축문화사랑'을 통해서 많은 건축사분들과 교감을 갖기도 하고, 최근의 좋은 작품들을 포함한 유익한 정보를 얻는 매체로서 호남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와 준 '건축문화사랑'을 발행하는 발행인 및 편집인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건축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발전이 있길 기대합니다.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회장 박홍근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대표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를 '의식주'라 한다. 그 중 '住'는 건축이다. 건축은 삶의 공간을 계획하며 구축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건축은 유기체다. 변한다. 지역, 기후, 문화, 기술, 재료 등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진화해 왔고, 그리 갈 것이다. 특히 영향의 기본요소는 문화다.

건축은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의 눈높이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건축들이 만들어진다. 좋은 건축 탄생의 시작은 탁월한 문화 수준의 눈높이를 가진 좋은 건축주로부터다. 건축주는 개인, 행정이나 단체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가 그 역할을 한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건축 수준이 판가름 난다.

당장 사용할 현재의 우리와 이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후손들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건축을 바라보는 건축문화 눈높이를 가져야 하는 이유다. 건축문화의 눈높이가 그날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한다. 그래야 보인다. 보이면 알게 되고, 알면 예전에 봤던 것과 다르게 다가온다. 우리가 건축주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용할 사람을, 건축물을, 도시를, 후손을... 함께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광주와 전남·전북건축사회가 발행하는'건축문화사랑' 신문이 창간 된 지 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신문은 소통의 장이다. 공유의 공간이다.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다. 건축주와 건축사, 행정가와 건축사, 시민과 건축사, 교수와 건축사, 건축사와 건축사 등등. 이들 간의 소통과 공유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살맛 나는 도시, 행복한 건축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건축문화사랑'이 그 중심에서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파이팅!

건축문화 「사랑」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조충기 회장 외 회원 일동

건축문화

사랑

창의적인 건축문화! 문화선진국 도약! 건축의 지휘자 건축사와친환경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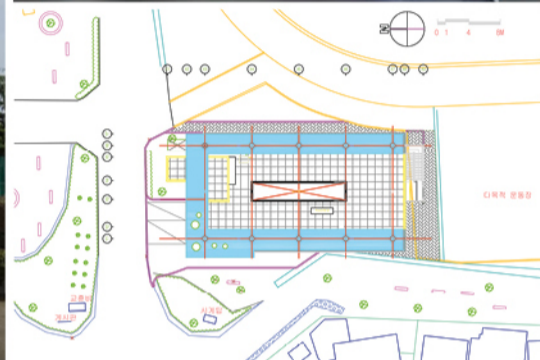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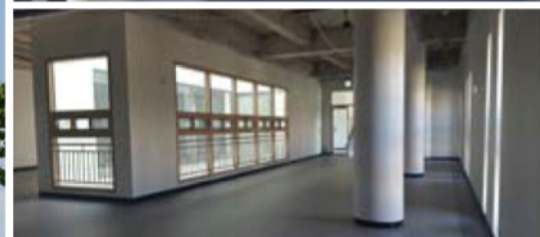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부문대상 대상 전라북도 과학교육원

4·19 민주혁명 발상지역사교육관

곽영경 건축사 / (주)간도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일곡택지로53번길 38-6
 Tel. 062-515-1111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302 / 대지면적 : 42,414.00㎡ / 건축면적 : 377.40㎡ / 연면적 : 830.55㎡ / 건폐율 : 8.90%
 용적률 : 1.96% / 규모 : 지상 3층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 구조 : 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노출콘크리트, T30 화강석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 선거 후보자 '전라권 토론회' 광주서 개최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서구 치평동 DJ센터 2층(201호) 세미나실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 검증하는 전국순회 토론회가 11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전북지역건축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라권 토론회가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01호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건축사회가 주관하여 광주지역 회원인 신정철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가 좌장으로 참여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32대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가 공약·견해를 밝힘으로써 선거인(회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 검증하여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경찰의날 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지난 10월 20일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서

지난 10월 20일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이 경찰청장(중앙 본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이번 감사장은 지난 8월 24일 광주 서구청에서 진행한 서부경찰서와 서구청과의 범치로부터 안전한 원룸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



에 일조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여된 것이다.

광주건축사회는 협약을 통해 서구지역 신축 원룸 건축물 설계 시 범죄예방 디자인(셉테드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회원 건축사들에게 권장하였는데, 건축물 진입로에 충분한 조명 설치와 범죄의 의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범창이나

가스 배관 덮개 설치,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한 CCTV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서구지역을 비롯해 향후 광주 전체 지역에 신축 원룸 건축물 설계 시 범죄예방 디자인(셉테드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건축사회, 서울시건축비엔날레 참관-건축문화투어 진행

지난 10월 14일 일반 시민과 건축, 도시 분야 전문가 70여 명 참석

광주건축사회(회장 정명철) 주관으로 '2017 광주건축문화투어-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참관'이 지난 10월 14일 진행됐다.

이번 건축문화투어는 광주시의 건축과 도시의 과제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축문화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광주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지난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한 달가량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다.

일반 시민과 학생, 건축사 등 약 70여 명이 신청하여 참가했는데, 특히 전년도에 비

“건축물 내진보강 · 안전진단 · 보수보강설계 우수 기업”

- 업종 : · 건축설계 / 감리업 (광주광역시-건축사사무소-223호)
 · 안전진단전문기관 (광주 제 28호)
 · 부동산개발업 (광주 130004)
 · 건설업-건축공사업 (05-0734)
 ·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광주 북 2009-2-4)
 · 기업부설연구소-내진보강설계 및 연구개발 (제 2015115259호)
 · 벤처기업 (제 20170109115호)
 · 중소기업(INNO-BIZ) (제 150402-01346호)

- 특허품목 : · 길이조절 기능을 갖는 제진형 가새장치 및 이를 이용한 브레이싱 공법 (제 10-1332602호)
 · 제진형 가새장치 및 이 가새장치를 이용한 브레이싱 공법 (제 10-1176374호)
 · 건축 구조물용 강재플레이트 제진 장치 및 이 제진 장치를 이용한 진동 감지 장치 (제 10-1718385호)
 · 방화 구획 기능을 갖는 창호 시스템 (제 10-1497963호)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호용 경량 하이브리드 폴리머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시공공법 (제 10-1498196호)
 · FRP리바 매립용 접착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FRP리바 시공방법 (제 10-1354534호)
 · 지반 시공용 나선 파일 (제 10-1567377호)
 · 유리섬유망을 이용한 구조체 보강공법 (제 10-1061822호)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Architecture Management Global

동하재

안성섭 건축사 / (주)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개2로9번길 29-13 Tel. 062-956-3380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282-10번지 / 대지면적 : 465.00㎡ / 건축면적 : 171.20㎡ / 연면적 : 235.45㎡ / 건폐율 : 36.81%
 용적률 : 50.63%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해 일반 시민들의 참가 신청이 증가하여 광주시민들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관심 증대를 엿볼 수 있었다. 이들 참가자들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전이 열리는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도시전이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하여 참관하고, 서울역 고가도로의 도시재생 공원과 사업인 서울로7017

을 답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정명철 회장은 투어를 진행하며 “광주시의 건축도시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건축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그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들과 함께 답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번 선진건축 도시문화 답사를 통해 직접 우리 광주시 건축과 도시발전을 위한 과제를 생각해 보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2017년 제3회 월례회의 개최

오는 11월 7일 시회 대강당서... 시회 업무현황 보고 및 장학금 전달식도 가자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1월 7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3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조례개정 현황 보고와 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변경 현황 보고, 광주건축사회 및 연금관리회·신탁 운영 관련 주요 현안보고 등

이 진행되었으며, 업무협약 체결기관인 서부경찰서와 KMI 한국의학연구소 관계자를 초청하여 원룸 건물 범죄예방 환경조성 설명회와 KMI 한국의학연구소 광주센터 건강검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한편 이에 앞서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회원 자녀를 비롯해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우수활동 학생 기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광주건축사회, 도시재생뉴딜정책 관련 심포지엄 개최

오는 11월 24일 LH공사 광주... 참가 건축사에 윤리교육 1시간 인정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11월 24일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3층 대강당(서구 시청



로 91)에서 일반 시민 및 건축사, 교수, 학생, 행정가를 대상으로 ‘광주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안전한 도시 건축물 재생을 위한 전문가 및 행정가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와 건축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의 발표와 ‘일본 도시 건축물 지진피해 및 지진위험에 대비한 재생사례’의 주제로 일본 도쿄대학 지진연구소 구스노키 교수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발히

시행하려 하고 있고 이에 도시재생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광주의 여건과 지역 특색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토론했으며, 이를 수행할 전문가와 행정가들의 역할을 고민하여 바람직한 광주의 도시재생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건축사는 건축사 실무교육 윤리 1시간이 인정되는데 11월 23일까지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에 접속하여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강종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바른 /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91번길 30, 504-2호
- 전입
 - 왕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다예 / 광주 서구 칠성로43번길 5, 2층
- 전출
 - 신홍민 건축사 / 청암 건축사사무소(전남 전출)
- 변경(상호, 소재지)
 - 장성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흙 /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28번길 15-8, 2층
- 변경(소재지)
 - 이형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플러스 / 광주 서구 상무연화로 112, A동 3층
- 결혼
 - 강철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코 - 10월 28일(토)
- 부고
 - 박현석 건축사 / 대림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0월 19일(목)
 - 임이기 건축사 / 푸른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0월 19일(목)

담양군 가암리 주택

신승민 건축사 / SM 건축사사무소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6 Tel. 061-471-9957



대지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가암리 83-30번지 / 대지면적 : 944.00㎡ / 건축면적 : 105.44㎡ / 연면적 : 149.68㎡
건폐율 : 11.17% / 용적율 : 15.85% / 규모 : 지상 2층 / 추후도 : 단독주택 / 구조 : 목구조



광양지역건축사회,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성금 200만 원 기탁

지난 10월 18일 광양에서 가진 회원 친목 화합 한마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광양지역건축사회(회장 박병엽)는 지난 10월 18일 전남 광양시 광양읍 월드컵 링센터에서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위한 불링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장 서경석)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이 성금은 광양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이

평소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으로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광양지역건축사회 박병엽 회장은 “광양 지역의 건축사와 직원 가족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렇게 기부금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우리 건축사 가족들도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서경석 이사장은 “회원들 간 단합하는 시간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 기부금을 전해주시는 광양지역건축사회 박병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하며, “점점 기온이 내려가는 시기에 시민들에게 따뜻한 소식으로 전해질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광양지역건축사회는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직원 가족을 포함한 50여 명이 상호 간 친목과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7 전라남도 패시브하우스 컨퍼런스’ 열린다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 순천만국가정원 내 국제습지센터 1층 입체영상관에서...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박용목)와 순천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주최로 오는 11월 24일 오후 2시부터 순천만국가정원 내 국제습지센터 1층 입체영상관에서 ‘2017 전라남도 패시브하우스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패시브하우스 _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 독일과 한국, 전남의 패시브하우스 선구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금, 왜 패시브하우스인가?’라는 발제로 한국 최초 패시브하우스 디자이너 자격증 취득자이며, 독일 PHI 인정 패시브하우스 인증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필렬 교수의 발표와 독일 로젠하임 프라운슈타인 패시브하우스 협회 프란츠 프로인도르퍼(Franz Freundorfer) 사무국장이 패시브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등 여러 해외 선진 사례들을 들려주게 된다. 또한 패시브하우스 전남포럼의 대표이자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의 대표인 박병열 건축사가 패시브하우스 건축주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다섯 가족의 다섯 가지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인간의 삶과 자연을 위한 좋은 건축이 어떤 것인지 작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 | | |
|------------------------------|----------------------------|
|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박용목 (유다산 건축사사무소) | 목포지역건축사회 회장 김동만 대림 건축사사무소 |
| 전라남도건축사회 부회장 조연준 건축사사무소 창조 | 순천지역건축사회 회장 김강룡 유피 건축사사무소 |
| 전라남도건축사회 이사 김 정 대진건축사사무소 | 여수지역건축사회 회장 배중수 한려건축사사무소 |
| 백종민 라인건축사사무소 | 나주지역건축사회 회장 최세호 빛가람 건축사사무소 |
| 손병완 영우건축사사무소 | 광양지역건축사회 회장 박병엽 박병엽 건축사사무소 |
| 이정심 가인건축사사무소 | 장흥지역건축사회 회장 문성식 AUD건축사사무소 |
| 박종경 가야건축사사무소 | 무안지역건축사회 회장 정정진 건축사사무소 정원 |
| 전라남도건축사회 감사 김맹수 건축사사무소예장 | 영암지역건축사회 회장 박명재 명제건축사사무소 |
| 장세운 이레건축사사무소 | 해남지역건축사회 회장 정용재 태진 건축사사무소 |
| | 화순지역건축사회 회장 범 정 범 건축사사무소 |
| | 장성지역건축사회 회장 최성수 건축사사무소 창 |

-전라남도건축사회 박용목 회장과 지역건축사회장 그리고 회원 일동-





목포 옥암동 단독주택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23, 5층 Tel. 061-332-0206

대지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219-3번지 / 대지면적 : 230.10㎡ / 건축면적 : 124.54㎡ / 연면적 : 194.64㎡
건폐율 : 54.12% / 용적률 : 84.89%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컨퍼런스 참가는 패시브하우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하며 일반은 1만원, 학생은 5천 원의 참가비가 있고 행사당일 순천만 국가정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패시브하우스 전남포럼 사무국(061-742-0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목포시, 근대건축자산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지난 10월 16일 보존 및 활용 사전기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전라남도 목포시가 지난 10월 16일 박홍률 시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근대건축자산 보존 및 활용 사전기획 연구용역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진행했으며, 목포의 근대 역사 우수 건축문화자산을 적

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시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용역은 이후 발주될 본 용역에서 다룰 우수건축문화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 및 기준, 유사사례 연구, 근대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지역지구 지정 등을 중점 다루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근대역사박물관 인근의 가치 있는 건축자산에 대한 진흥정책수립과 관련해 필요한 연구 과제들의 세부 활동을 정립하고 단계별 수행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유달동 일원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건축자산 지원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는 전략을 중점 논의했다.

시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목포 소재 우수 건축자산 진흥 지역 모델을 구축하고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자산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오고 있다.

목포는 지난 1897년 10월 1일 개항 후 전국 3대항 6대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달동 및 선창 주변을 중심으로 각종 근대 시설물들이 건립됐고, 현재도 역사적·관광적 측면에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다. 근대문화가 고스란히 숨 쉬고 있어 도심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전남 여수시, 경관 조례 개정 시행... 경관심의 대상 확대

지난 10월 20일부터 시행...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전라남도 여수시가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를 위해 전부 개정된 '여수시 경관 조례'를 지난 10월 20일 시행했다.

시는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확대와 함께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경관 조례에 따라 시행일부터 미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3층 이상이거나 높이 12m 이상 건축물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여수 전역 높이 21m 이상 건축물과 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종전과 동일하게 건축

물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시는 소규모 건축 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지난해 제정·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 조례에 포함돼 있던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들을 모두 삭제했다.

시는 삭제된 조항들을 포함하는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지난 9월 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디자인 사업이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타 행사 소식>

▶ 2017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

- ◎ 일 시 : 2017. 11. 23.(목) 13:30~16:00
- ◎ 장 소 : 중흥골드스파리조트(나주시)
- ◎ 내 용 : - 2018년 주택·건축 분야 업무 계획 및 시·군 의견수렴
-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정책 설명
- ◎ 주 최 : 전라남도
- ◎ 참석대상 : - 전남건축사회 건축사 및 직원
- 도 봉천·직속기관·사업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 건축직 공무원
- 시·군 건축직 공무원

전남 회원동정

- 전입
- 신홍민 건축사 / 청암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95
- 변경(소재지)
- 김창원 건축사 / (그룹)에스앤에이 건축사사무소 가원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북3길 40, 2층
- 강인수 건축사 / 예담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 65
- 결혼
- 조봉기 건축사 / 조은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10월 21일(토)
- 부고
- 이원경 건축사 / 우일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0월 23일(월)
- 정 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대성 / 본인별세 - 10월 26일(목)
- 김동식 건축사 / 우주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10월 28일(토)

스카이라크

조창호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33-2, 수연빌딩 4층
Tel. 063-229-6567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동 774-4번지 / 대지면적 : 1,410.10㎡ / 건축면적 : 863.59㎡ / 연면적 : 11,599.19㎡
규모 : 지하 3층, 지상 10층 / 주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접합강판, 징크판, 로이유리

전라북도민과 함께하는 '제18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지난 10월 28일부터 6일간 전북도청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제'라는 주제로



제18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북도청에서 개최됐다.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전북도와 (사)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회장 전병갑)가 공동 주최하고 전라북도건축사회를 비롯한 5개 건축단체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도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제'라는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행됐다.

주요 행사로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전시(제18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한옥 기획전시, 역대 건축문화제 재조명, 한옥건축도구 기획전시) △학술발표 △차세대 꿈나무 육성사업(어린이 집그리기 대회, 과자로 집만들기 체험, 건축 백일장 대회, 건축 올림피아드) △도민 참여행사(3D 프린팅을 통한 건축디자인 모형출력 체험, 건축 및 진로상담, 페이스페인팅) 등을 진행했다.

전라북도 건축사회 전병갑 회장은 "도민들의 요구에 함께 공감하고 뜻을 같이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건축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축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건축문화제의 면모를 확인하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건축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한 것 같아 마음이 부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접수된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작품 공모작일

반 부문(사용승인), 학생 부문(건축계획, 기술계획, 건축사진 부문에 대한 수상작과 어린이 집그리기대회, 건축백일장, 건축올림피아드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승일 행정부지사를 비롯, 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 전병갑 회장 및 전북도 내 건축단체 회장, 수상자와 가족 관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건축물 사용승인 부문 공공건축물에는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NH농협 전북 통합본부', 민간부문에서는 백현 건축사사무소 양우현 건축사가 설계한 'DNB 빌딩'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전북 군산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소통의 장 마련

지난 10월 18일 중앙동 지역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군산시는 지난 10월 18일 중앙동 지역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경제 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우리 동네 살리기형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선정 방식도 중앙공모와 광역 공모로 이원화되어 유형별로 50억 원에서 250억 원의 국비가 차등 지원될 예정으로, 시에서는 중앙동 지역을 중앙공모 방식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부문에 신청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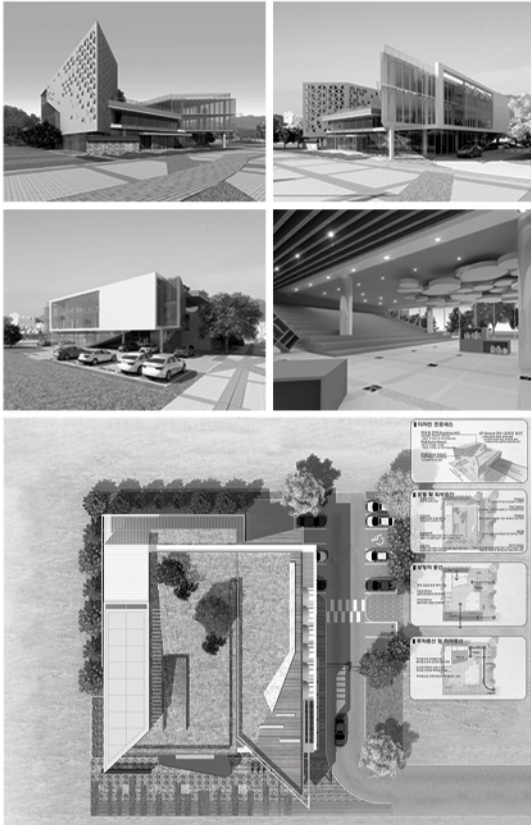
이에 중앙동 주민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올 초부터 진행한 국토연구원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도시쇠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꾀보선창, 신영시장 일원을 잇는 도시재생 활성화 기본 구상(안)을 작성하여 사업 추진 배경과 목적, 다양한 사업 계획 등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서 준비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시 열린 '군산의 물길' 그리고 군산의 '새 물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8주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욱 발전하는 건축문화사랑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모든 건축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전병갑 회장과 임직원 그리고 회원 일동



심 도서관

김남중 건축사 / ㈜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154
Tel. 063-274-3647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14-9번지 / 대지면적 : 2,500.00㎡ / 건축면적 : 1,196.17㎡ / 연면적 : 3,306.55㎡
건폐율 : 47.85% / 용적률 : 132.26% / 규모 : 지상 4층 /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로이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결'이라는 목표를 설정 '3개의 가로 재생과 3개의 거점개발'로 구역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로 유입된 많은 관광객들을 전통시장이 밀집된 신영시장 인근으로 유도하여 원도심의 성공적인 사업 효과가 확대 전파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계획안을 담고 있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침체되었던 월명동 일원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아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며 "이번 재생사업 신청에 중앙동이 선정되어 기쁘고 주민들과 합심하여 군산시의 또 다른 성공 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 도시재생 공모사업 계획이 늦게 확정 발표되어 준비기간과 주민과의 소통 시간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 공모사업 선정 과정과 사업 선정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하고 구체화하여 군산시가 명실상부한 국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 상담반 운영

지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

장수군은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진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2012년 2월 1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무허가, 미신고 축사와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무허가, 미신고 축사이다.

또한 해당 기간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군은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효율적 추진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군 축산·건축·환경부서 담당자, 건축사, 축협, 축산단체장 등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또한 지난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개별 컨설팅을 접수받아 상담반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적법화가 가능한 축산농가의 경우 바로 적법화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 내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사용 중지·폐쇄 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시 건축 질서 확립 위해 하반기 지도점검

오는 11월 30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전라북도 익산시는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 이행을 유도하고 불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 확

인업무를 대행한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 385개소이다.

시는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조서의 적합 여부, 사용승인 이후 가구수와 세대수 불법 증설 여부, 무단 용도변경 여부, 대지 내 부설주차장과 조경의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사항의 경우 건축주는 시정 조치 및 고발 조치한다. 또한 공사 감리자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건축사는 전라북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기타 행사 소식>

▶ 2017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 일 시 : 2017년 12월 19일
- ◎ 장 소 : 전주 오펜리스(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3)
- ◎ 부의안건 : 임원(회장·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전북 회원동정

- 전출
 - 공병주 건축사 / 삼이 건축사사무소 /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전출
- 변경(소재지)
 - 이영준 건축사 / 아리울 건축사사무소 / 전북 김제시 향교길 186
 -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총경로 26-6
 - 한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이든 / 전북 군산시 검다메안길 13
- 결혼
 - 이병영 건축사 / 광남 건축사사무소 / 차남 결혼 - 10월 28일(토)

세무법인 서정, 광주건축사회 세무자문위원 정호령 세무사

"국세청 22년 경력으로 어려운 세금문제 도와 드립니다."

▶ **취급업무** ◀

세무상담 / 신고대리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조세불복 / 세무조사조력

본점 :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31 (일곡동, 광산빌딩 5층)
지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뽕꽃3길 12 (Tel. 063-277-0544)
Tel. 062-575-3105-7 / Fax. 062-575-3109 / E-mail : ho-rjung@hanmail.net



제21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 ◎ 주 최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건축주택과
- ◎ 주 관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 시상목적 : 광주광역시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 장려
- ◎ 시상근거 : 광주광역시건축조례 제45조(건축상 등)
- ◎ 취 지 : 건축문화의 창달에 기여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사, 시공자에게 시상
- ◎ 응모대상 : 2015년 이후 광주광역시 관내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작품에 한함.
(기 시상 받은 건축물 제외)

은 상 설계자 : 정명환 건축사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 시공자 : 문병윤 대표 (강호종합건설주)

Mareuk 67 _ 지웃컴퍼니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마루로 67 / 대지면적 : 636㎡ / 건축면적 : 255.27㎡ / 연면적 : 683.33㎡ / 건폐율 : 40.14%
 용적률 : 107.44% / 규모 : 지상 4층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은 상 설계자 : 정관성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 시공자 : 신경렬 대표 (좋은건설)

A BUSTLING HOUS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148번지 / 대지면적 : 316.40㎡ / 건축면적 : 111.51㎡ / 연면적 : 248.60㎡ / 건폐율 : 35.24%
 용적률 : 56.88%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노출콘크리트

◎ 시상 구분

- 주 거(리모델링 포함) :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 비주거(리모델링 포함) :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 응모작품 : 7점(비주거 5점, 주거 2점)

◎ 심사일시 : 2017. 9. 21.(1차) / 2017. 9. 25.(2차) / 2017. 10. 18.(3차)

- 1차 회의 : 제21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평가항목 논의 및 현장심사일정 협의
- 2차 회의 : 건축상 평가항목 최종확정 및 현장심사 진행
- 3차 회의 : 최종심사 진행

◎ 심사결과 : 은상 2점 / 동상 2점 선정 (※ 올해 금상 수상작은 선정하지 않음)

◎ 심사위원 : 7인

소 속	성 명
광주건축사회(당연직 위원장)	박동준 건축사
광주전남건축가회(위원)	김갑동 건축사
광주시 건축주택과(위원)	배윤식 과장
전남대학교(위원)	고성석 교수
조선대학교(위원)	김용춘 교수
호남대학교(위원)	최명규 교수
광주대학교(위원)	심재춘 교수

동 상 설계자 : 조성호 건축사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 오세규 교수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시공자 : 임승엽 대표 (주)태우종합건설



동 상 설계자 : 이순미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미가온 / 시공자 : 김승만 대표 (주)세종이엔지



사람과 문화가 있는 도시디자인, '제1회 국제도시디자인포럼' 개최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광역시와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가 함께 주관하는 2017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이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제도시디자인 포럼은 '사람과 문화가 있는 도시디자인'이라는 주제 아래 시민, 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국내외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도시디자인의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고 도시의 미래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회식은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제해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와 쿠니오시 나오유키 광주시 도시디자인 자문관의 포럼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뒤이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광주도시디자인에 대한 철학과 비전'에 대한 발제와 톰 버럽(Tom Burrup)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빌더스 대표의 기초 발제가 진행된다.

전체 회의 I에는 크리스티앙 바르데 파라프 디자인 대표와 이정형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며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에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담아내는지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감할 것이다.

전체 회의 II는 보행문화가 어떻게 도시의 문화를 바꾸었는지를 점검하면서 한국 도시의 미래를 전망할 예정이다. 이 세션에는 유르겐 로즈만(Jurgen ROSEMAN)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테츠로 오다시마(Tetsuro Odasima) 일본 요코하마 시청, 김기호 서울 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한다.

광주 도시디자인 프로젝트를 다루는 전체 회의 III는 양동 도시재생사업,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등 광주의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지역민이 함께 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체 회의 이외에도 양림동 근대 문화유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푸른길, 광주폴리 등 광주의 도시디자인의 사례를 둘러보는 문화탐방과 행사장 내에서 진행되는 광주 도시디자인 작품전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www.gud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gudf@gic.or.kr로 문의할 수 있다.

순천대 건축학부 송성욱 교수, '2017 경기도 건축문화상' 대상 수상
사용승인 부문에 출품한 여주박물관 '여마관'으로... 지난 10월 13일 시상식 가져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송성욱 교수가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이성관 건축사(서울)와 공동설계한 여주박물관 '여마관'이 '제22회 경기도 건축문화상' 공모에서 사용승인 부문 1위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의 시상식이 지난 10월 13일 '2017 경기건축문화제'가 열린 시흥에코센터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여주박물관 여마관은 여주 지명 역사의 근원인 마암의 의미를 잘 담았으며, 남한강과 초록 숲·잔디와 함께 풍경 속 조형물로서의 건축물이다. 또한 수공간이 남한강 수면과 이어지는 듯한 설계로, 강이 마치 바로 앞에 있는 착시 효과를 주고 있으며, 검정 유리에 하늘과 강물이 반사되어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인다.

또한 시민들은 수채와 같은 여강과 마암의 풍경을 벗 삼아 박물관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다양한 기획전시와 각종 교육·체험에 참여하는 등 2016년 7월 개관 이후 14만 명이 찾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된 것도 심사위원들에게 높게 평가됐다.

앞서 이 건축물은 2017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 및 올해의 건축 베스트 7 선정과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까지 수상하며 우수건축물다운 면모를 보였다.

한편 송성욱 교수는 울산대학교와 미국 미시간대학교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SOM과 한울건축을 거쳐, 현재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광주대 건축학전공 학생들, 한·일 학생교류 및 기업체 탐방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건축물 답사와 일본 학생들과 교류 등 진행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3~5학년 학생들과 교수들이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답사를 다녀왔다.

첫째 날인 26일 인천 답사를 시작으로 둘째 날부터 일본의 대표건축가 단게 겐조의 도쿄 도청 전망대 관람과 3D 프린터 회사(아스텍)를 방문, 안도미술관

관람을 통해 안도 다다오의 대표작들을 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안도 다다오 건축가를 직접 만날 수 있어 뜻깊은 답사가 되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인 코가네초 방문 후 요코하마시립대학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특강을 듣는 등 일본의 건축과 도시재생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광주대학교 박유현 학생기자

광주대 건축학과 4학년 학생들, 양림동 답사 진행

지난 9월 23일 역사 마을 양림동에서... 광주 근현대 100년의 역사 특강도



지난 9월 23일 광주 양림동에서 진행되는 양림동 투어 프로그램에 광주대학교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날은 특별히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홍근 건축사(주)포유 건축사사무소가 함께 했는데 광주의 근현대 100년의 역사에 대해 그리고 양림동의

역사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학기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양림동에 접근한 광주대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광주대학교 박유현 학생기자

전남대 건축학부 재학생, 'NH주택건축대전'서 대상 수상

김유빈·김유진 남매의 '자발적 취락', 1인 가구와 공용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



▲ 김유빈(왼쪽), 김유진(오른쪽)

올해 N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 제21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에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재학생 김유빈·김유진 남매의 '자발적 취락' 출품작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남매들은 출품작에 대해 "개개인의 자취가 서로 포개지고 겹치는 과정 속 자유로운 경계 안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며 이 가능성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할지는 개개인의 몫으로써 건축가는 이를 돕는 행위만을 할 뿐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경계 없는 공간들이 이 시대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공유의 의미를 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소감에 대해 "본 공모전은 거주지 마련의 어려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청년층의 경력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1995년 첫 공모를 시작하여 올해 21회를 맞이하는 역사 깊은 공모전으로 전국 67개 대학 총 203개 팀이 출품했다.

전남대학교 배성훈 학생기자

사랑에서 _ 서른여섯 번째

너에게 묻는다

시골에서 도회지로 유학 온 나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어렵사리 시작한 신혼생활 때까지 '연탄'은 중요한 에너지 원이었다. 연탄불은 추운 겨울 방안 가득히 온기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양철 바가지 속의 차가운 물을 데워줘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생존을 위한 음식을 조리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온몸을 다 태워 자신의 역할이 끝난 연탄재는 쓰레기로 버려지고, 재활용되기도 한다. 지금은 보기 드물지만 그때 참 많이들 사용했다.

세상은 다양한 부류의 인간들이 모여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돌아가고 있다. 개인, 수십 명, 수백 명이 순간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세상은 섭 없이 돌아간다. 누군가, 어느 집단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렇다고 개인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한 인간의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 빠진 부분을 바로 채우고 유기적으로 보완되면서 돌아가고 전진한다.

개인이나 그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순간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전부를 잃거나 아주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오랫동안 빈자리가 크다. 그러나 사회는, 세상은, 나라는 좀 다르다. 바로 대체되어 돌아간다. 그렇지만 가족들과 당사자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그 빈자리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또 다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세상살이라 생각된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잘(?) 살자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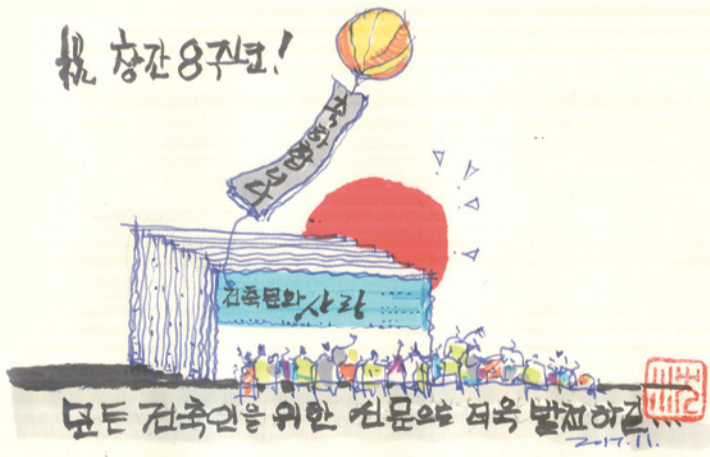
나에게 묻는다. 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을 보내고 있는가? 시인 안도현은 우리 일상의 사물을 통해 삶의 의미와 교훈을 준다. 예전엔 흔했지만, 지금은 보기 힘든 연탄재를 보고서다. 그의 <너에게 묻는다>란 시는 이렇다.

/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 너는 /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

나에게 되묻는다.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버려질 것인데,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동안 어느 곳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또... 얼마나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문위원_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법/령/정보

□ [법령] 건축법 공포(2017.10.24.) [시행 2018.4.25.]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면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으나,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인들에게 어떠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며,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령] 건축법 시행령 공포(2017.10.24.) [시행 2017.10.24.]

▶ 개정 이유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16층 미만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의 건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범위 축소(제10조의3제1항제2호)

종전에는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연면적의 규모는 층수 또는 높이와 달리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축소함.

나.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제2항)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및 단독·공동 주택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에 추가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명철, 박용목, 전병갑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정명환
 부편집인 강동영,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전담기자 객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정영범,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이광영, 윤미순, 백재봉, 박주현,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 아카임 300,000원
- (주)마이다스아이티 300,000원
- 세무법인 서정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책 소개 _ 박혜숙 건축사 / 구민 건축사사무소(전북 전주)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나이토 요시히토(심리학자) 저 / 김한나 옮김 / 유노북스 / 2017. 03. 17.



일을 하면서 부쩍 '아... 왜 이렇게 말투가 거칠어지는 걸까?'란 생각이 들 때쯤 우연히 보게 된 책.

모두 다 그러진 않을 테지만 '내가 남녀공학을 졸업한 탓에 이렇게 말이 거칠어요~'라고 하기엔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째이니 이걸 너무 나약한 핑계인 듯하다.

살다 보니 어느새 내 몸엔 솔직한 말투 + 약간의 욕설?이 장착 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 장점으로 다가왔던 솔직한 말투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소심해지는 나에겐 상대방의 대답이 상처로 자리 잡게 됨을 느끼며 고민하고, '나두 좀 고상해지고 싶어!' 그리고 '누구나가 아닌 나만의 대화방식을 만들어가고 싶다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책이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다.

이 책엔 여러 가지 법칙과 테크닉 그리고 말투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나열이 되어 있다.

어떻게 말하면 상대의 'YES'를 끌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말하면 상대를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는 일이 술술 풀리게 되어 있는지 등이 제시되어 있다.

물론 이론과 현실의 갭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제시되어 있는 인간의 심리를 적극 활용한 말하는 방법이 제법 흥미로웠다. 그 사람이 쓰는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이 쓰는 말 자체의 신뢰도를 결정한다는 KEY POINT엔 별 세 개를 그리며 밑줄을 그어본다.

자신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심리가 변화하는데 자신이 긍정적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이 부정적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한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늘 긍정적으로 그리고 욱두문자는 좀 자제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습관을 실천으로 지금보단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오길 기대해 본다.

세상사는 느낌 _ 임준영 학생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Towards my architecture

내 나이 19살 때,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를 마친 뒤 책장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일기장을 발견했다. 지금 떠올려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중학교 시절 속 나의 꿈에 관한 이야기였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나는 커서 건축가가 될 거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봉사하며 살 거야. 그게 내 인생이야.' 그 당시 모든 수시 원서를 건축학과에 지원했었고, 최종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놀랐다. 내 기억 속 조각을 발견함에, 그리고 그 크기와 깊이에 대해... 이렇게 나의 기억과 생각들은 나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결국, 나는 내가 원했던 건축학과에 입학했고, 새로운 조각들을 찾아 나갔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건축은 정말 어려웠다. 난이도는 최상급... 밤을 새워가며 창작의 고통을 느꼈고, 떠오르는 해는 곧 마감 시간의 압박이었다.

이런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의 성공과 실패는 존재했다. 그때마다 느껴지는 감정들이 나를 계속 변화시켰다. 가끔씩 부정적인 생각들(건축, 꿈에 관해)도 만연했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초심은 변하지 말자,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 해본 채"

내 나이 24살, 현재 나는 건축을 배우고 있는 대학생이다. 건축은 그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시대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다. 건축은 건축가의 삶도 반영한다. 아직 나는 건축 밖에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건축 안으로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는 나에게 웃으며 말해주고 싶다. "자 이제 시작이야!"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몽상

팽팽하지도 늘어지지도 않게
하늘을 바치고 있는
시골집 앞마당 빨랫줄 같은
적당한 긴장감으로
이런 저런 상념들을 펼쳐둔다

앞마당 평상위에
너부러진 세월자국을 따라
어머니도 있고,
청춘의 미소들도 너울거린다.

쨍쨍 내려찍는 햇살과
새하얀 물계곡들은
질펀하게 자리를 펴고
손사래를 쳐가며
환한 웃음을 웃어댄다.

아지랑이 같은 몽상들이
허공을 향하여
파란 입술을 뻐죽거린다.

말고 푸른 하늘은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한다고.

내손 안의 스마트감리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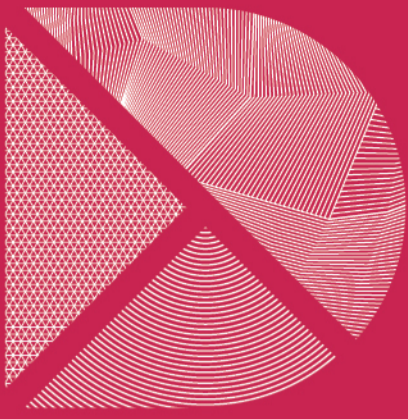
국내최초 국내유일 공사감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키엠

2017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반영!!

PDF매뉴얼 다운로드
www.archim.kr

facebook 아키엠
 youtube 아키엠



광주광역시건축사회와 함께하는 미다스 CAD 세미나

세상에 없던 CAD,
혁신 그 이상.

2017.11.30(목) 14:00-17:00

행사 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301호

행사 문의
TEL 031 789 4268 Email hrlee@midasit.com

참가 신청
www.midasArchi.com/semina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선을 그리는 문화에서
정보를 디자인하는 문화로
Innovation through Integrated Information
”

13:30 - 14:00		참석자 등록 및 입장
14:00 - 15:20	Sessoin 1	도면작성에 가장 완벽한 CAD, Archi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환경을 기반으로 건축설계 실무에 최적화된 CAD, midas ArchiDesign의 핵심기술과 제품컨셉을 소개합니다. midas ArchiDesign의 놀라운 기술은 건축가의 생각을 바로 표현하고 설계변경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도면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15:20 - 15:50		Break Time
15:50 - 17:00	Sessoin 2	템플릿! ArchiDesign의 무한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작성의 혁신이 설계업무에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효용 및 활용방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설계업무 혁신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절약계획서 3시간만에 끝내기 특별한 서비스. Only Archi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직 ArchiDesign만이 가능한 특별한 서비스 최초 공개
17:00 - 17:10		설문작성 및 사은품 증정

지금 대한민국은
신개념 캐드
**midas ArchiDesign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9/21
서울코엑스
250명

10/19
부산
110명

11/1
대전
80명

11/30
광주

참가 접수중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후원

“혁신적임. 반복작업 없이 정확하게
도면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음”

“CAD설계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직접 확인하세요! 참가신청 www.midasArchi.com/seminar

건축문화 사랑 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외 임원일동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정명철 이사장 외 임원일동

부회장 김선영 일우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128번길 63, 2층 TEL. 062-367-7151 FAX. 062-367-7153	부회장 윤양현 이조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광산로 31-1 TEL. 062-944-8870 FAX. 062-944-8872	부이사장 정인재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광주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16-12, 2층 TEL. 062-383-5513 FAX. 062-384-5515	이사 문출성 영창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백서로 14, KT백운빌딩 4층 TEL. 062-234-1400 FAX. 062-234-1139
이사 이기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1201호 TEL. 062-233-4800 FAX. 062-233-4801	이사 임채열 나성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독립로367번길 73 TEL. 062-529-2300 FAX. 062-529-0108	이사 안성섭 (주)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화개2로9번길 29-13 TEL. 062-956-3380 FAX. 062-655-3383	이사 김 곤 선택 건축사사무소 북구 유림로 140 TEL. 062-512-6900 FAX. 062-513-3576
이사 정관성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광주 광산구 풍영로 249, 402호 TEL. 062-384-6430 FAX. 062-384-6431	이사 한상훈 (주)건축사사무소 휴 광주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 1층 TEL. 062-714-1055 FAX. 062-714-1056	이사 한명석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광주 서구 경열로 20 TEL. 062-352-0415 FAX. 062-352-0416	이사 이해란 나래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용봉택지로 65, 3층 TEL. 062-529-6171 FAX. 062-529-6173
이사 박재홍 (주)홍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89, 408호 TEL. 062-375-6282 FAX. 062-375-6284	이사 이영문 이영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29-5, 2층 202호 TEL. 062-515-0432 FAX. 062-515-0436	이사 김경우 은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271-6 TEL. 062-527-4345 FAX. 062-527-4346	건축사회 & 신협 감사 문강욱 (주)승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중흥로 71, 2층 TEL. 062-526-8660 FAX. 062-526-8663
이사 장동원 동원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백서로 167, 302호 TEL. 062-224-0060 FAX. 062-224-0061	이사 조휴환 수전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고운로5번길 10-2, 3층 302호 TEL. 062-528-8662 FAX. 062-528-2601	건축사회 & 신협 감사 박진호 건축사사무소 이감 광주 서구 화정로 49번길 3 TEL. 062-385-1401 FAX. 062-385-1412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4층 TEL. 062-527-8893 FAX. 062-528-0026
이사 강형선 종합건축사사무소 메카 광주 서구 화정로 293, 4층 TEL. 062-351-7400 FAX. 062-369-6745	이사 강연심 (주)백두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서하로 92, 302호 TEL. 062-575-8071 FAX. 062-369-6745	□ 광주 건축사회 : TEL. 062-521-0025~6 / FAX. 062-528-0026 / 이메일 : gjkira@empas.com □ 광주건축사신협 : TEL. 062-527-8890~1 / FAX. 062-528-0026 / 이메일 : cu08118@cu.co.kr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회원사 광고

건축사 광영경 (주)간토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일곡택지로53번길 38-6 TEL. 062-515-1111 FAX. 062-515-2210	건축사 김옥재 건축사사무소 지음 광주 남구 군분로 134-1 TEL. 062-363-0855 FAX. 062-364-0855	건축사 길종일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장동로 41, 4층 TEL. 062-222-0210 FAX. 062-222-0230	건축사 오금열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장동로 41, 4층 TEL. 062-222-0210 FAX. 062-222-0230
--	--	--	--

건축문화 사랑 신문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회장 석정훈 石正勳 사회

부회장 이만희 李萬熙 사회

대구광역시 권영준 權英準 사회

인천광역시 권영준 權英準 사회

광주광역시 권영준 權英準 사회

대전광역시 권영준 權英準 사회

울산광역시 권영준 權英準 사회

세종특별자치시 권영준 權英準 사회

경기도 권영준 權英準 사회

강원도 권영준 權英準 사회

충청북도 권영준 權英準 사회

충청남도 권영준 權英準 사회

전라북도 권영준 權英準 사회

전라남도 권영준 權英準 사회

경상북도 권영준 權英準 사회

경상남도 권영준 權英準 사회

제주특별자치도 권영준 權英準 사회